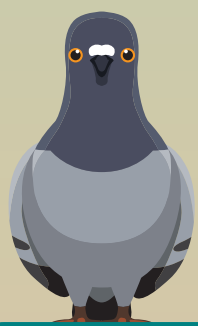


유리창에 쿵

투명한 유리를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새들은 빠른 속도로 날다가 간혹 건물의 유리창에 부딪힙니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유리창 충돌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외선을 인식하는 새들의 시각에 착안한 필름을 원내 건물 유리창에 부착했습니다. 사각형 모양 필름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새들의 충돌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실천하는 다양한 충돌 예방법



출 매달기



아크릴 물감으로 점 그리기



스티커 붙이기



불투명한 시트 붙이기

필름의 간격은 참새 등 소형 조류를 고려하여 5cm(세로) x 10cm(가로) 미만으로 붙여야 합니다. 새들은 자신의 몸 크기를 알고 있어 몸보다 작은 곳을 통과해서 날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